

INDIE DESIGNER MARKET

인디디자이너마켓

인디디자이너마켓 : 나는 디자이너다

인디디자이너들은 디자인계의 신규 수요를 불러일으키며 디자인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기업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며, 고유한 위치를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일상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디디자이너 마켓 : 나는 디자이너다]에서는 이 같은 인디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 제품을 직접 확인하며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Indie Designer Market : I am a Designer

Indie designers are changing the landscape of the design industry by inciting new demands in the design field. They are creating their unique identity different from that of design firms and are leading innovation with their creative ideas. Diverse design products that reflect the design philosophy of indie designers can be viewed and bought directly at the [Indie Designer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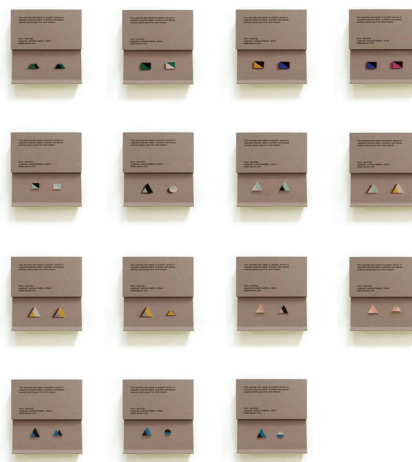
김지연

THISIS. JIYEON

www.thisis-jiyeon.com



디자이너 김지연은 일상의 평범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쓰임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며, 삶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Designer Ji-yeon Kim uses everyday materials to show a sense of existence or potential that is different beyond everyday life. In addition, she continues to create designs with environment taken into account.



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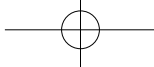
GUMBOOK

www.gumbook.co.kr



(주)아메바 디자인의 브랜드인 '검북'은 대중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유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메시지를 간결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로 전달하는 카드북 시리즈, 디자인 교육에 대한 준 학습물 시리즈를 만듭니다.

"GUMBOOK" is a brand made by Amoeba Design Co. We are working on a project to share warm and happy communication among people. We make card-book series which convey warm messages from everyday life with a simple text as well as illustration, and semi-study kit series on design education.



NOTHING DESIGN GROUP

www.designnothing.com

NOTHING
DESIGN
GROUP

"NOTHING 디자인 그룹"은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사물을 다루는 디자이너 조직입니다. '사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멤버들은 사물에 대한 폭넓은 관점,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며 수많은 디자인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NOTHING DESIGN GROUP" is an organization of designers who deal with things based on oriental thoughts. We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with a purpose to "find and provide diverse stories about things to people." Members search for multiple possibilities about design through studies on various viewpoints about things and lik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the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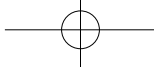
노크 KNOCK

www.knock-your-life.com



'노크'는 계원조형예술대 제품디자인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디자인 그룹입니다. 여행과 사진을 테마로 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대부분의 제품을 자연소재로 만듭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심플한 스타일의 제품이 '노크'의 브랜드 네임을 강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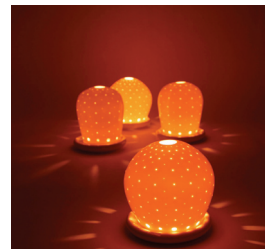
"Knock" is a design group Composed of graduates from the Department of Product Design in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We develop our ideas with themes of travel and photography. Most of our products are made of natural materials. Products with simple designs for people who love to travel and knock the world's door enriches the meaning of our brand name "Knock."

더
삼공삼
THE
303

www.the303.net



더삼공삼은 고객들이 'wow(와우)' 소리를 낼 정도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이 가득 담긴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합니다. 일상에 지친 소비자의 마른 감성을 깨울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작하며 '즐겁고 활기찬 일상을 위한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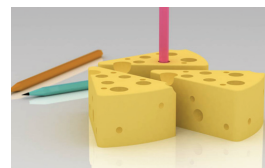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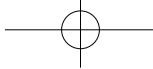
"THE303" seeks for a concept of design full of happiness. We strive for the designs that give our customers little surprises that 'wow' them. We make handmade products which moistens the dry everyday life of the customer. We aim to make 'design which helps people live an enjoyable and energetic life.'

We strive to make products that settle in your heart as you use it. We make the product which is also substantially needed, and more than merely a superficial attraction. We present products which serve the hidden needs of customers and trends of the future. We enhance a product's practicality and efficacy by re-creating current products from new perspectives.

두김
디자인
DOKIM
DESIGN

겉멋을 부린 제품보다는 필요한 제품, 사용하면서 더욱 친근해지는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needs)와 앞으로의 트렌드를 발견해 제품으로 제시하며,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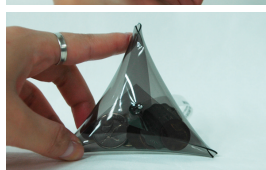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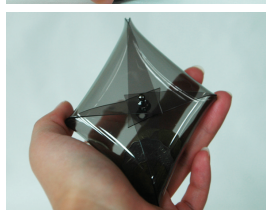
'두 디자인 스튜디오'는 '고정된'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 그런 시도와 도전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디자인 서비스 업무는 물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들도 제작합니다.

두 디자인 스튜디오 DOO DESIGN STUDIO

www.doo-ds.com

"Doo Design Studio" persistently tries and challenges for new designs, rather than going after "stable" concepts of design.

"Doo Design Studio" was founded to open people's mind with inventiveness. Along with diverse design services, "Doo Design Studio" provides design products which may be used in our everyday life.



드로잉 프로젝트 와이닷11 DRAWING PROJECT Y.11

www.y11.kr

'드로잉프로젝트와이닷11'은 '사소해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자는' 모토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두 명의 디자이너가 주축이 된 '드로잉프로젝트와이닷11'은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기억들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아, 제품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Drawing Project Y.11" was established under the motto of "enriching the everyday life which may seem trivial but never is trivial." With 2 designers on the front, "Drawing Project Y.11" unique products of designers empowered from little but precious memories of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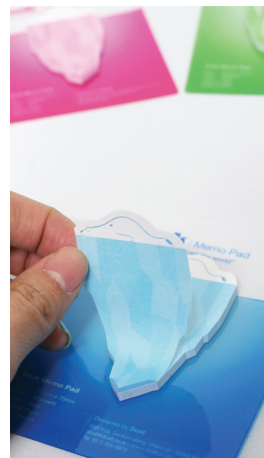


디셀 DCELL

www.dcell.co.kr



'디셀'은 해피(happy), 심플(simple), 노멀(normal)을 철학으로 하는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여러 일반적인 제품들을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디셀'의 목표입니다.



"Dcell" is a studio that designs products with its philosophy of "happy," "simple," and "normal." It is our aim to make many people happy using our various "normal" products in a simple form.

디자인 바이러스 DESIGN VIRUS

www.design-virus.com

'디자인바이러스'는 흔히 접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소재들에 대한 재해석, 재구성을 통해 디자인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도들을 널리 전파시키자'는 모토 아래,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DESIGN VIRUS" re-defines and re-forms materials which were once seen as mundane and too common. Through our work, we would like to expand the ground for these materials in the design world. Under our motto, "transmit the results of our new experiments like a highly contagious virus," we are engaged in various design activities.





디자인 스튜디오 민정씨 STUDIO MINJOUNG.

'디자인 스튜디오 민정씨'는 2008년 서울시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기업들을 지원하는 '서울디자인창작스튜디오'에 '민수정씨'로 시작한 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일상을 관찰하며 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즐거움과 실용성이 가미된 제품을 만듭니다.

"STUDIO MINJOUNG. C" began its first steps in 2008 as "Minsujoung. C," in the Seoul Design Studio which supports competent design companies in Seoul. By observing everyday life, "STUDIO MINJOUNG. C" sets clear directions for its design. Based on this, "STUDIO MINJOUNG. C" makes products which are fun and practical.



디자인 엠엔엠 DESIGN M&M

www.fancym.com



"디자인 엠엔엠"은 소장하고 싶은 선물, 친구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팬시문구 브랜드입니다. 실용적이고 간소한 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엠엔엠'은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캐릭터상품 및 기프트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Design M&M" is a stationary brand which puts much value on making "friend-like products" that one would like to have for themselves. With the purpose to make simple and practical design, "Design M&M" produces character products and gift products which makes people we love full of happiness.



디자인원 DESIGN ONE

www.designone.co.kr

'디자인원'은 미(美)와 기능이 혼합된 제품을 만듭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디자인 철학을 제품은 물론 제작 과정에도 적용시킵니다. 독창적인 사고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하고, 사용자와 밀착된 제품을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Design One" makes products that combine beauty and function. Our design philosophy that "simple ideas may change our lives" is applied on the making process as well as our final products. We complete our design through original thinking and detailed analysis. We make diverse challenges to make products frequently used by customers.



디자인 하다 DESIGN H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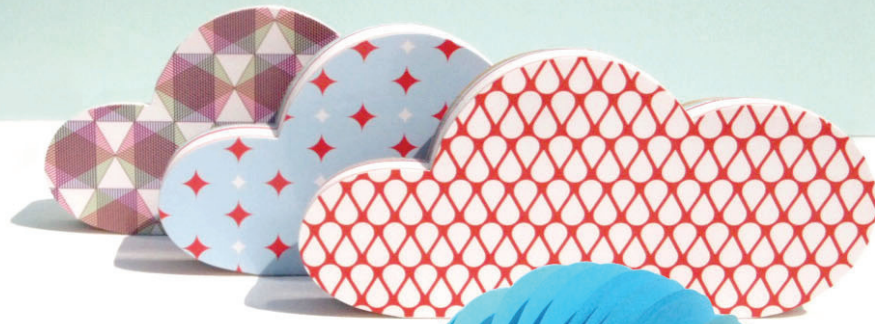
www.designhada.com

'디자인하다'는 '편 스타일(Fun style)'을 추구하는 디자인용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제품 하나 하나마다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위트가 담기면서도, 기초가 되는 실용성도 갖추 수 있도록 기존의 것에 다양한 기획을 접목합니다.



"Designhada" is a brand which specializes in making design products in a "fun style." The idea and wit of designer is reflected in every single product of our brand. We also make various experiments on existing products to make it more practical.





레드 클라우드 RED CLOUDY

www.redcloudy.com

'레드클라우드'의 '레드'는 단순한 빨강이 아닌, 열정을 말합니다. '클라우드'는 흔한 '구름'이 아닌, 꿈입니다. 해질녘에 보이는 '빨간 구름'을 상징하는 아이콘은, 디자인 제품으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며 사람들의 삶을 서서히 물들이고 싶은 '레드클라우드' 제품을 상징합니다.

rED in "rEDCLOUDY" is not just red; rED is passion. "cLOUDY" is not just a cloud; "cLOUDY" is a dream as well. Our icon symbolizes the "red cloud" which floats in sunset sky. It symbolizes the "rEDCLOUDY" products which colors people's lives with little elements of joy of everyday life.



레드 포인트 RED POINT

www.redpoint.kr

'레드포인트'는 생동감 넘치는 창조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다각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디자인그룹입니다. 소비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바와 레드포인트가 추구하는 이념이 같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디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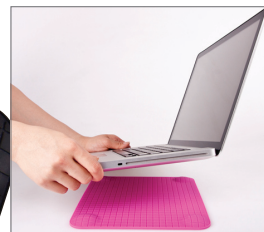
"Red Point" consistently challenges creativity full of energy. It is a design group which steps along with the multifaceted culture of the contemporary world. Beginning from adjusting the viewpoint to the needs of customers and users while trying to reach our goal at the same time, we present a creative coordination for a full and enriched life for people.



루카랩
LUCALAB
www.lucalab.com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루카랩'은 크리에이티브 트렌드를
주도하는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루카랩'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사용자를 생각하는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주도로
개발된 디지털 디바이스의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을
디자인, 제조, 판매합니다.

Leading a new lifestyle,
"LUCALAB" is a design brand
which pioneers creative trends.
"LUCALAB" aims to make
design products most needed
in everyday life. When we
design, we think of the user's
lifestyle. We design, produce
and sell accessories for digital
devices and interior items.



리블랭크
REBLANK
www.reblank.com

'리블랭크'는 '다시'라는 접두사인
'리(re-)'와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블랭크(blank)'가 조합된 이름으로서,
국내의 대표적인 재활용 디자인
기업입니다. 버려지고 낭비되는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쓰레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The name "REBLANK" is the
synthesis of the prefix "re-"
and the word "blank," which
means "infinite possibilities."
"REBLANK" is an accredited
recycling design company of
the country. We make new
products by upcycling wasted
resources. We are taking
the lead to resolve problems
caused by garbage.



마망베베 MAMAN BEBE

www.mamanbebe.co.kr

'마망베베'는 엄마가 된 디자이너가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의 어린 시절은 물론, 딸을 키우는 일상까지 디자인의 영감이 됩니다. 턱받이와 딸랑이 같은 유아용품에서부터 캐릭터 인형, 쿠션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의 손을 직접 거쳐 완성됩니다.

"Maman Bebe" is a brand made by the designer who became a mother. She was inspired from her experience of childbirth and raising her child. Beginning from her own childhood, every moment of her quotidian life, like raising her daughter becomes an inspiration for design. From baby products such as bibs and rattles to character dolls and cushions, every product goes through the designer's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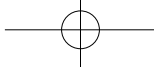
모두 디자인 MODU DESIGN [CHEESE+]

www.modudesign.com

'모두디자인[CHEESE+]'는 사용자 각각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구, 팬시, 사무 및 생활용품 등을 제작합니다. 개성 있고 차별화된 제품 때문에 사용자는 '치-즈'하며 웃는다,를 생각하며 디자인합니다.

"Modudesign[CHEESE+]" makes unique and fun stationary, fancy products, office products, and living products which gives the customers a different feeling according to their own lifestyle. Moreover, when we take a photo, we put a big smile on our faces and say "CHEESE." We design thinking of the big smile the customer will put on his/her face, as when he/she says "CHEESE" in front of the camera, as he/she uses our original and unique products.





몽드 MONDE

불어 '몽드(monde)'는 '세상, 사람들, 대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몽드'는 사람들과 세상이 가까워지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인테리어가 보다 편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공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픽 스티커를 제작해, 누구든지 인테리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The French word "monde" means "the world, people, and popular." Through our design, we help people become closer to the world. "Monde" makes more comfortable interior items through its design. By producing graphic stickers that enhance the atmosphere in a simple way, we make our every customer professionals of interior design.



비아 케이 스튜디오 VIA K STUDIO

www.viakstud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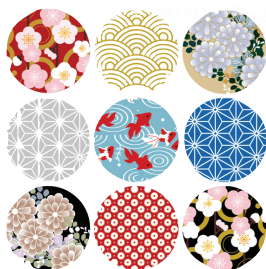
'비아 케이 스튜디오'는 장인정신이 기반이 된 공예제품을 통해, 수작업의 정성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담은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예의 '따뜻함', '전통', '고유함'과 같은 가치를 제품에 담기 위해, '미디 꾸뛰르(midi couture)' 제품 생산 방식을 따릅니다.

Through crafts made based on the spirit of artisan, "via K studio" makes products which incorporate the sincerity of handmaking, and modern sensibility. To put the values of craft such as "warmth," "tradition," and "authentic" to our products, we apply the "midi couture" process to make our products.



DESIGN KOREA 2011
TREND + CREATIVE + BUSINESS = SMART DESIGN

삐딱
BBIDDAK
www.bbiddak.com



디자인 팬시 브랜드 '삐딱'은 독특한
그림과 흥미로운 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수준 있는 작품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을
기획하여 차별화된 완성품을 만듭니다.

The fancy design brand
"BBIDDAK" makes various
design products by using
unique drawings and
interesting patterns. We plan
our high quality products of
domestic illustrators to be
used in everyday life without
much pressure of budget,
and finish by using design to
differentiate our products in
the design world.



'상상날개'가 추구하는 것은 '즐거운
생활공간 디자인'입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소소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고 만들어
냅니다. 삶을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연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 합니다.

상상날개
SANG SANG
NAL GAE

www.sgsgwg.com

"Sang Sang Nal Gae" seeks to
"design enjoyable living space."
"Sang Sang Nal Gae" designs
and makes products which
solves little problems faced in
everyday life. To make products
which help the customer enjoy
a more fun and efficient life,
"Sang Sang Nal Gae" tries to
find new ideas by observing
the everyday life of people.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 = 스마트디자인

인디디자이너
마켓



소유 디자인 SOYOU DESIGN

www.soyoudesign.com

'가치고 싶은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모토로 2009년에 설립된
'소유디자인'은 문구, 데스크용품,
리빙용품 등의 아이템을 디자인합니다.
2010년에는 디자인기업으로
이례적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는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년창업1000프로젝트'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SOYOU Design" was founded
in 2009 under the motto of
"designing the value you want
to have." We design stationary,
desk items, living products,
etc. We were certificated as
a venture business in 2010,
the quality which is very
special and difficult for design
companies to obtain. We are
expanding our business with
the support from "SBA (Seoul
Business Agency)'s Youth
Business 1000 Project."



스튜디오 딩동 STUDIO DING DONG

www.studiodingdong.com



'스튜디오 딩동'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딩동'하고 울리는 소리처럼 밝고
유쾌한 제품을 만들고자 시작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제품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지나쳤던 것들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물건들을 디자인합니다.

"STUDIO DING DONG" is a
design studio that started out
to make bright and funny
products, like the joyful sound
of the doorbell, "ding-dong!"
We design fun and enjoyable
products which are inspired
from everyday items easily
neglected.



스튜디오 오오 팩토리 STUDIO O_O FACTORY

www.mobile-tail.com

'스튜디오 오오 팩토리'는 나라와 지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개성과 행동을 보여주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만듭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기억에 남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Studio O_O Factory" makes design products that provides a creative and fun experience to contemporary global customers with diverse identity and activity. We aim for designs that are more and more memorable as one use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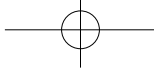
스페이스바 스토어 SPACE-BA STORE

www.spacebastore.com

'스페이스바 스토어'는 누를 때마다 원하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스페이스바' 키(key)처럼 우리의 즐거운 상상들을 제품화하는 문구-리빙 디자인회사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Like a space bar that gives you as many spaces as you want whenever you push the key, SPACE-BA STORE is a stationery-living design studio that provides as many designs as you want whenever you imagine something pleasant. We do everyone the pleasure of making good products.





시간이 지나 AS TIME GOES BY

www.astimegoesby.kr

'시간이 지나'는 마음을 전하는 얇고, 가볍고, 아름다운 도구인 '카드'를 전문으로 만드는 디자인스튜디오입니다. 작고 가벼운 종이의 특성을 살려 간단한 구조로도 입체적인 오브제가 만들어지도록 하며,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여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As Time Goes By (Kor.: Siganijina)" is a design studio that specializes in making "cards," a slim, light and beautiful medium of sending one's heart. By highlighting the small and light quality of paper, we make 3D objets with simple structures. Using soybean oil ink on environment-friendly paper, we complete "a designs mindful of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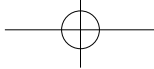
알루이 ALLUY

www.alluy.co.kr

'알루이'는 사물 속에 숨어있던 스토리를 찾아내어 소비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일상의 감동은 예술품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디자인 제품을 설계, 제작합니다.

"ALLUY" strives to tell customers the stories hidden inside items. "ALLUY" designs and produces design products with the thought that "moving emotions felt from everyday items in everyday life means much more than the artwork."





앤섬 &SOME

www.and-some.com

디자인 브랜드 '앤섬'은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심플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소품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엮어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제품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편안하고 모던한 느낌의 제품을 만듭니다.



The design brand "&Some" presents simple and unique design accessories that reflected the meaning and value of everyday life. To design comfortable and modern products, we incorporate various stories of people's everyday lives to our products.



앤소온 AND-SO-ON

www.and-so-on.net

'앤소온'은 도자를 전공한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디자인그룹입니다. 공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앤소온'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수공예적 제작에 주력하며, 도자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환경도자, 인테리어 설치까지 도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And-so-on" is a design group made of ceramic artists. "And-so-on" focuses on the hand made process from design to production to seek the real value and meaning of craft. We are expanding the limits of ceramic art from environmental ceramic art made possible through ceramic design consulting, to the interior installation of ceramic arts.



'에코브릿지'는 사람과 환경을
연결시켜주는(BRIDGE :매개체,
다리역할) 자연친화적인 메시지(ECO)
를 전한다는 모토로 디자인합니다.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자"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와 제작 방법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ECOBIDGE" designs under
the motto of conveying
environment-friendly
messages that connects
people and environment.
We make our products with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and methods which enables
the realization of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 from
the smallest part of life."



에코준 컴퍼니 ECOJUN COMPANY

www.ecojun.com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린디자인을
추구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에코준컴퍼니'는 기획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유해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에코준컴퍼니'의 자체 캠페인으로
올리는 판매수익은 구매자 및
파트너 이름과 함께 '아프리카
우물 만들기'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The seoulite social company
"Ecojun Company," seeking
for green design for the next
generation, strives to minimize
harm to the environment from
design to disuse. The sales
profit of the "Ecojun Company"
is donated to the "Making
Wells in Africa" campaign led
by ecojun company with the
names of the buyer/partner.





오키즘 OKISM

www.nobelsseflo.com

‘오키즘’은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런 조화를 실현시켜 줄 제품들을 디자인합니다. 식물과 꽃, 오브제로 목적 공간(Objective space)을 색다르게 연출하여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또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상품들도 제작합니다.

"Okism" designs products which realizes the harmony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By freshly setting the objective space through objet, plant, and flower, "Okism" stimulates five senses of customers. We also make products which has users feel nature within the city.



‘이안디자인’은 1989년에 설립된 그래픽디자인 회사입니다. 기업의 프로모션디자인, 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그래픽 전반에 걸친 디자인 서비스업이 주 업무이나, 2008년부터 기존 작업과 병행하면서 ‘INNERTIME’이란 브랜드로 독자적인 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ANDesign" is a graphic design company founded in 1989. Our main business is general graphic design service including promotion design for businesses, publishing design, web-design, etc. However, we are also making products on our own under the brand name of "Innertime," along with the current graphic services.

이안 디자인 IAN DESIGN

www.iandesign.co.kr



이혜란 LEE HYE RAN

www.hyeranlee.com



일상 속의 친숙한 사물들을 활용하며 디자인합니다. 금속의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를 구현한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파스타주얼리'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금속제품으로 일상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HYE RAN LEE's products are designed by utilizing familiar items inside everyday life. By making products which realize the solid but detailed structure of metal, the designer seeks to give visual delight to people. "Pasta Jewelry" is also a metal product based on such idea, and an artwork with the story of everyday life.

인크로마 INCROMA INC

www.jeever.co.kr



"INCROMA" is the gathering place for people who want to make the world beautiful through design. We specialize in everything related to product design, such as designing, producing, and planning. We are making various challenges to make art out of life.

'인크로마'는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디자인, 생산, 설계 등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으로 하며, 삶이 곧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는
**JUNG
EE EUN**

www.jungeeeun.com

동일한 기성품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레디메이드(ready made)'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 슈퍼마켓의 어지러운 정경을 볼 때' 등 아이디어는 어느 때라도 찾아온다는 '열린 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JUNG EE EUN's design is based on the concept of "readymade," which enables different experiences by taking different viewpoints on the same readymade product. JUNG EE EUN's design is based on "open imagination." The designer is open to the idea even at the "moment of throwing away rubbish, or the moment of looking at the dizzy atmosphere of a supermarket."



커먼
디자인
스튜디오
**COMMON
DESIGN
STUDIO**

www.commondesign.co.kr

'커먼디자인스튜디오'는 일견 평범해 보이는 디자이너가 만드는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 제품 스튜디오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 소비자를 생각하는 이런 제품이 완성되도록, '커먼디자인스튜디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ommondesignstudio" is a studio which makes "extraordinary" design products made by a seemingly ordinary designer. To complete a product which thinks of the customers, a product with a "nice design and rational (or reasonable) price" for more people, "commondesignstudio" is making various approaches to do the job.



키우마루 KIWOOMARU

www.kiwoomaru.com

'키우마루'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동화를 꿈꾸는 '키덜트 문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욕구를 동경하며, 자연친화적이고 동화적인 따뜻함을 갖춘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듭니다. 마니아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디자인합니다.

"Kiwoomaru" is a brand that focuses on "kidult culture" which dreams of fairy tales while looking at the beautiful environment. We admire people's innocent desires, and make environment-friendly, warm, and fairy tale-like handmade products. We design products with detailed touches which stimulate the sensibilities of manias and more.

키티 버니포니 KITTY BUNNY PONY

www.kittybunnypony.com

패브릭 전문 브랜드 '키티버니포니'는 실생활에 어우러지는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100% 국내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내외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다채로운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ITTYBUNNYPONY" is a brand specializing in fabric products. We make various fabric products which goes through 100% domestic process with a careful management of quality. We present colorful products mad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designers in and out of the country.





타즈 캐비닛 TAZ CABINET

www.tazdesign.co.kr



이야기와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2007년 '타즈캐비닛'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디자인 그룹이 지금의 '타즈'가 되었습니다. '타즈'는 '재미+감각+활력'을 지향하며, 하나하나마다 사용자의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To make products that remind users of stories and memories, we started our design group with the name of "Tazcabinet" in 2007. It is now reborn as "Taz." "Taz" goes after "fun+style+energy." We design our products to convey fun and amusing stories for the customers.

터치포굿 TOUCH 4GOOD

www.touch4good.com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현수막과 지하철 광고판 등을 업사이클링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과 소품을 만듭니다. 수익금 일부는 저소득층 아토피 어린이들을 위해 물품지원 및 환경캠프참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Touch4Good" upcycles the placards and ad-boards at the subway station to make bags and accessories with only one model in the world. Part of our sales profit goes to supporting the children with the atopy from needy families, and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education ca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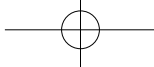
파운틴 스튜디오 FOUNTAIN STUDIO

www.designfountain.com



프리랜서 디자이너 양재원과 이현정 이 운영하고 있는 '파운틴 스튜디오'는 외주 디자인 컨설팅 작업(제품, 편집)과 개인 디자인(생활소품, 조명, 가구 등) 작업을 통해 스튜디오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ountain Studio" is owned by designers Jae-won Yang, and Hyoun-jeong Lee. Through outsourcing projects of design consulting (producing, editing) and personal design (living accessories, lighting, furniture, etc.), we are making the brand image of our studio.



디자인코리아 2011
트렌드 + 크리에이티브 + 비즈니스 = 스마트디자인

인디디자인어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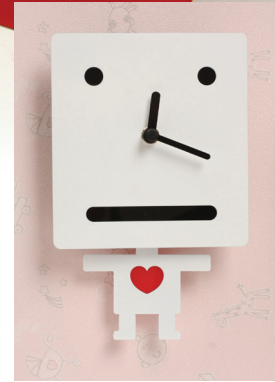


판클락 FUN CLOCK

www.johnstory.co.kr

재미와 웃음이 있는 디자인 시계 제품을 추구하는 존스토리의 디자인 시계 브랜드 '판클락'입니다. 판클락은 '신기하고, 재미나고, 웃음이 나고'의 한글 '고'를 한문의 '고(高)'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완성되도록 합니다.

This is "Fun Clock," the design clock brand of "John Story" which aims to make design clock products that give fun and laughter to the customers. We interpreted the Korean character "go" in "singi-ha-go (mysterious), jaemina-go (fun), usumina-go (giving smiles)" as the Chinese character "高(which means "high")." Thinking that mystery, fun and smile is some of the high qualities in design, we complete the design to give the utmost joy to customers.



페이퍼램프 PAPER LAMP

www.p-lamp.com



'종이'와 '달'을 사랑하는 '페이퍼램프'입니다. 디자인창작소 사월은 '종이'로 감성이 담긴 디자인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밤하늘의 보름달을 담아 넣은 듯한 조명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휴식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PERLAMP" loves "paper" and "moon." Design studio SAWOL makes emotional design products with "paper." The light which looks like the full moon captured in a paper envelope, helps people relax and feel comfortable.

'페이퍼팩'은 우리의 일상과 소중한 기억들을 기록하고 간직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잡지, 단행본 등 다양한 출판물에서 영감을 얻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출판물의 콘텐츠나 레이아웃에 반영되도록 디자인, 제작합니다.

"PAPERPACK" was founded to tell people that it is very valuable to record and remember our everyday life and valuable memories. We are inspired from various publications, such as old books and magazines. We design and produce to reflect these ideas in the contents and layout of the publication.



페이퍼팩 PAPER PACK

www.yourpaperpack.net



푸트리랜드 PUTREE LAND

www.putree.com



'푸트리랜드'는 아티스트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로서 아티스트 푸트리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들로 아트상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작 외에 동화책 작업을 함께 함으로써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PUTREE LAND" is a brand owned and managed by the artist. Artworks are made from the illustrations drawn by the artist Putree. Along with making products, "PUTREE LAND" is working on making children's books.

해아 HAEAH

www.haeah.co.kr

'해아'는 한자로 '나를 풀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풀어간다'는 것은 기본을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아'는 기본에 충실하여 덧붙임 없이 정직한 디자인, 그렇기에 불수록 진솔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Haeah" means "disentangling me" in Chinese characters. "Disentangling me" means learning the basics. "Haeah" seeks to make honest design. We strive to present design that customers can rely on for years to come.

